

“기억” 탐색의 서사

- 格非의 《追忆乌攸先生》과 《青黄》 -

金 榮 哲*

<目次>

I. 序論	2. 존재에 대한 “기억”
II. “기억” 탐색의 서사	탐색: 《青黄》
1. 집단 “기억”의 탐색: 《追忆乌攸先生》	III. 結論

I. 序論

“기억”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 “기억”은 정보를 저장하고 유지하고 다시 불러내는 기능을 의미한다.¹⁾ 각 민족은 자신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유지하고 전파하면서 각각의 독특한 문명을 이룩하고, 개인들은 자기가 살아온 추억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²⁾ 이렇게 “기억”하는 동시에 우리는 과거 체험의 일부를 망각하게 된다. 그 망각은 잊혀 지긴 했지만 오히려 각 민족의 문명이나 개인 삶의 민얼굴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집단적인 망각은 권력이나 이념 등의 금지 혹은 억압에 의한 것일 수 있고, 개인적인 망각은 각종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방어기제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기억”과 망각은 포

* 동국대학교(경주) 중어중문학과 교수

1)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8%B0%EC%96%B5>)

2) 주경철, 《문화로 읽은 세계사》, 사계절, 2010, 6쪽.

함과 제외라는 양과 음,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지닌다. 조금 거칠게 말한다면 공식화 된 역사서는 집단의 “기억”을 저장하는 텍스트라면, 소설 등 문학작품은 그 “기억”에서 제외된 “망각”을 탐색하는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 발터 벤야민이 프루스트의 소설을 “기억”이 아니라 “망각”을 짜는 일이라고 한 말도 이런 의미일 것이다.³⁾

중국 당대(當代)소설에서 중국현대사에서 소외된 백성(老百姓)의 집단 “기억”을 찾으려 한 작가로는 신사실주의 작가인 刘震云을 들 수 있다. 그는 중편 소설 <温故1942>에서 1942년 河南省에서 아사한 300만 명에 대한 “기억”을 탐문해 기록했고,⁴⁾ 최근엔 장편 소설 《一句顶一万句》⁵⁾에서 현대사 100년의 역사기록에서 제외된 소외된 백성(老百姓)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망각된 집단의 “기억”을 사실적으로 되살리려는 刘震云에 비해, 先锋派 작가 格非는 망각된 “기억”을 찾는 여행을 다른 차원에서 시도하며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다.

格非는 “기억”이 지닌 특성에 따라 집단 혹은 개인의 “기억”을 탐색하는 방식을 실험하며 다층위적인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미메시스 위주의 80년대 중반 중국 당대 소설 문단에 이색적인 체험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은 “기억”을 탐색하는 格非의 중단편 소설 중에서 집단의 “기억”을 탐색하는 그의 처녀작 《追忆乌攸先生》과 특이하게도 “青黄”이란 어휘 혹은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는 중편소설 《青黄》이다.⁶⁾

3) 발터 벤야민,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프루스트의 이미지>, 민음사, 2003, 103쪽.

4) 刘震云, 刘震云, <温故1942>, 《답털 같은 나날들》, 소나무, 2004, 211쪽. “역사의 흐름은 그들과 인연이 없었다, 역사는 화려하고 장엄한 넓은 홀에서만 이루어졌다.”

5) 刘震云《一句顶一万句》, 长江文艺出版社, 2009. 刘震云, <혼돈(混沌)의 가장 자리: 刘震云 소설 《一句顶一万句》의 한 가지 독법>, 중국어문학 제65집, 2014, 189-212쪽.

6) 李洁, <时空碎片中重构的个人体验—格非中、短篇小说叙事特点初探>, 《梧州学院学报》第17卷 第5期, 2007, 80쪽. 格非의 작품 중에서 “기억”을 다룬 작품

格非는 다른 작가들과 달리 교수를 겸직하고 있는 관계로 문학 이론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를 작품에 구현하는 작가이다. 특히 서양의 모더니즘 관련한 그의 논문은 그의 작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논문의 II장 본론 초반에서는 “기억”과 관련된 프루스트와 카프카, 廢名에 대한 그의 논문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집단의 “기억”을 탐색하는 《追忆乌攸先生》과 “青黄”이란 어휘(존재)에 대한 “기억”을 탐색하는 《青黄》을 “기억”을 탐색하는 格非의 방식이란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III장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기억”이란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그의 작품의 특징과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기억” 탐색의 서사

格非가 “기억”에 관심을 보인 것은 그의 처녀작 《追忆乌攸先生》(1986)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는 “기억”을 추적한다는 의미인 “추억 追忆”이란 어휘로 자기 작가 생활을 시작한다. 제목 뿐 아니라 그의 작품 여러 곳에서 “기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이 작품의 첫 장에서도 독립된 문장으로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한다.”⁷⁾라고 서술한다. 즉 “추억 追忆”란 어휘를 우연히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억”과 “시간”과 “망각”의 문제를 깊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반영한다. 2년 뒤에 출판한 《青黄》에서는 “시간”과 “기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발전시키고 있다.

“시간의 긴 강은 언제나 은밀히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모든 것을 잠기

으로는《追忆乌攸先生》、《陷阱》、《迷舟》、《没有人看见草生长》、《边沿》、《失踪》、《初恋》、《褐色鸟群》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집단과 존재(개인)의 “기억” 탐색이라는 점에서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다.

7) 格非, <追忆乌攸先生>, 《戒指花》, 春风文艺出版社, 2007, 1쪽.

게 한다. 그러나 “기억”은 마치 오래전에 강 밑에 가라앉은 파편을 수면위에 떠오르게 한다. 마치 푸른 풀이 눈에서 다시 돋아 오르는 것처럼.”⁸⁾

格非의 이 서술은 마치 벤야민이 프루스트의 작품은 “잃어버린 시간의 바다에 내던져진 그물을 건어 올리려는 노력”⁹⁾이라고 한 메타포를 연상시킨다. 사실 “기억”에 대한 格非의 견해는 벤야민, 프루스트, 카프카 그리고 중국 30년대 작가 废名과 연결선 상에 있다.

그는 그의 문학이론서 《文学的邀约》의 <记忆>이라는 장에서 벤야민의 견해를 소개하며 프루스트, 카프카 등의 작품 속에 나타난 “기억”의 여러 양태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중국의 30년대 작가 废名の “기억”에 대한 언술도 인용하고 있다.¹⁰⁾ 이러한 “기억”에 대한 언술은 格非 초기 작품의 핵심적인 이론적 배경이라는 점에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格非 작품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格非는 벤야민이 <论卡夫卡><普鲁斯特的形象> 논문 중에서 “망각”은 카프카의 중요한 주제이며 프루스트 작품의 내재적 추동력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한다. 벤야민은 프루스트의 글쓰기를 “기억”이라는 씨줄과 “망각”이라는 날줄로 구성된 “기억”의 천짜기로 비유하고, 프루스트는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는 “망각”을¹¹⁾ 더욱 좋아했다고 소개한다. 목적에 맞고 이성적인 제약이 가해지는 의지적 “기억”보다는 무의지적인 “기억”인 “망각”이 오히려 “기억” 속의 ‘심연’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것이다.¹²⁾

이에 대해서 프루스트의 “기억”에 대해 张旭东의 설명을 참고하면 보다

8) 格非, <青黄>, 《青黄》, 浙江文艺出版社, 2001, 67쪽.

9) 발터 벤야민, 반성완 편역, 앞의 책, 117쪽.

10) 格非, <记忆>, 《文学的邀约》, 清华大学出版社, 2010, 29쪽.

11) Homer의 《Odyssey》에서 Penelope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밤에 천을 짜고 낮에 푸는 천 짜는 작업에 비유한다. “무의지적 “기억”을 중국에선 “非意愿记忆”라고 번역한다.

12) 格非, <记忆>, 《文学的邀约》, 앞의 책, 32쪽, 발터 벤야민, 반성완 편역, 앞의 책, 103쪽.

명료해진다. 그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追忆逝水年华》 13권은 시간 속에 흘러가는 경험들을 “우연한 기회 机遇”를 통해 찾아 낸 기록이며, 프루스트는 “기억”을 이성으로 찾는 “의지적 ‘기억’ 意愿记忆”과 칠혹 같은 어둠 속에 망각된 “무의지적 ‘기억’ 非意愿记忆”으로 나누고, “무의지적 ‘기억’ 非意愿记忆”을 통해 오히려 온전한 일생을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해석했다.¹³⁾

格非는 <《城堡》의叙事分析>, <卡夫卡的钟摆>¹⁴⁾ 등의 논문에서도 카프카의 서사 방식 중 “기억”에 주목했다. 格非가 본 카프카의 작품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과장과 괴이한 극적 요소를 지닌 우연을 추리적 기법으로 서술했다는 점이다. 카프카 소설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곤충으로 변하고, 《심판》의 K는 첫장에서 아무 죄도 없는 데 갑자기 체포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처음부터 카프카의 소설은 일상 현실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들로 독자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간다. 일반 독자들은 카프카의 충격적인 언술에 빠져 어리둥절하면서 글자 그대로 그레고르가 실제로 곤충으로 변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格非는 주변 사람들에게 흥취한 벌레로 취급당하는 것을 우연적 기법으로 서술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카프카의 언어를 작가의 언어로 파악한 통찰로 평가할 수 있다.¹⁵⁾ 이와 함께 格非는 카프카가 마치 탐정소설과 같이 추리 기법을 사용해 치밀하게 긴장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과 《소송》은 마치 탐정소설처럼 소설의 중심 스토리와 사건의 경과를 모두 드러내지 않고 진행한다. 무엇을 나타내고 숨길지, 무

13) 张旭东, <拯救是我个人的展现-普鲁斯特与历史哲学>, 《批评的踪迹》, 三联书店, 96-101쪽.

14) 格非, <卡夫卡的钟摆>, 《博尔赫斯的面孔》, 译林出版社, 2014, 191-216, 259-275쪽.

15) 편영수, <카프카의 중국 읽기>, 《카프카연구 제28집》, 한국 카프카 학회, 2012, 77쪽. 이 논문의 논자도 카프카의 소설을 寓言으로 보고 많은 비평가들이 카프카의 작품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오해를 한다고 지적한다.

엇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말할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생략할지를 계획적으로 배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사건 전체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따라가게 된다. 格非에 의하면 카프카의 소설이 탐정소설과 다른 점은 탐정소설은 결말에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지만, 그의 소설은 마지막에 가서도 사건 전체를 조합하기 힘들고 단지 한 귀퉁이만 엿보게 하며 어떤 답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⁶⁾

둘째는 카프카의 소설에는 “망각”이라는 “중간지대”가 있다는 점이다. 벤야민은 카프카 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신화적인 경험을 지닌 과거(“기억”)와 현대 대도시의 경험을 대표로 하는 미래(억압성적 공포) 사이의 “중간지대”라고 지적하고, 그 “중간지대”인 현재에 오면 빈 공간이 되고 “망각”이 되며,¹⁷⁾ 그 망각은 카프카에 있어서 상상의 저장창고¹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格非는 벤야민이 말한 “중간지대”라는 개념을 “캄캄한 방 黑屋子”으로 다르게 비유한다. 格非는 카프카의 소설을 보면 환한 곳에서 갑자기 캄캄한 방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보통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잠시 어지러움을 느끼다 시간이 좀 지나면 방안을 알아 볼 수 있으나, 카프카의 “캄캄한 방 黑屋子”은 눈이 어둠에 적응하게 되고 나면 방안이 모두 낯설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과거 방안에 대한 “기억”은 점차 “망각”으로 바뀌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설명한다.¹⁹⁾ 다시 말하면 A가 黑屋子(캄캄한 방)을 지나 B로 바뀌는 과정에서 B는 과거의 자신인 A의 정체성을 “기억”하나 결국 A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B가 되는 것이다. <변신>의 그레고르의 정체성을 둘러싼 “기억”과 망각의 갈등은 결국 그레고르가 가족과 사회에서 내몰리면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지워지고 마지막에는 사물(사체)로 변화됨으로써 끝이 난다. 반대로 소설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는 생포된 원숭이가

16) 格非, 앞의 책, <卡夫卡的钟摆>, 《博尔赫斯的面孔》, 219쪽.

17) 같은 책, 232쪽.

18) 발터 벤야민, 반성완 편역, 앞의 책, 86쪽.

19) 格非, 앞의 책, <卡夫卡的钟摆>, 《博尔赫斯的面孔》, 238쪽.

인간이 되는 이야기인데, 원숭이는 과거의 자신을 억압하고 망각함으로써 인간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²⁰⁾

格非에게 “기억”에 대한 또 다른 성찰로 영향을 준 작가는 중국 30년대 작가 废名이다. 박사 논문 테마로 삼을 정도로 废名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던 그는 废名이 체험과 “기억” 그리고 글쓰기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을 “반추 反刍”라는 비유로 적절히 설명했다고 인용했다. 글쓰기는 바로 “기억” 중의 체험을 “반추 反刍”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와 현실 생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²¹⁾, 이 때문에 그의 작품은 단순한 반영론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높게 평가한다.²²⁾ 이 “반추 反刍”의 작용으로 현실은 근본적으로 재구성, 전이, 변형, 왜곡, 뒤바뀐 평가, 갱신 등이 발생하며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²³⁾

이상과 같은 “기억”에 대한 논의는 格非 소설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格非식의 “기억” 탐색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작가들과는 또 다른 그만의 특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20) 박은주, <“기억”과 망각의 ‘역설적 결합’으로서의 글쓰기>, 《위히너와 현대문학》 21, 466-467쪽. 재인용. V gl. Aleida Assmann, Erinnerungsräume. Formen und Wandlungen des kulturellen Gedächtnisses, München 1999, S. 27ff.

21) 格非, 앞의 책, <记忆>, 《文学的邀约》, 30쪽.

22) 格非, 앞의 책, <废名的意义>, 《博尔赫斯的面孔》, 145쪽.

23) 이상과 같은 근대에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작가들의 “기억”에 대한 논의는 서양 문예학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것은 “기술로서의 ‘기억’”과 “힘으로서의 ‘기억’”이다. 전자는 서구에서 오랜 전통을 지닌 고대 “기억” 술에서의 “기억”이다. 이 “기술로서의 기억”은 저장하기와 불러오기의 동일성을 목표로 하는 기계적인 처리 방식이다. 한편 “힘으로서의 기억”은 시간과 망각의 요소가 “기억”의 과정 속에 들어가 저장과 불러내기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생겨난다. “힘으로서의 ‘기억’”에서 힘은 고유한 법칙성을 지닌 에너지로, “망각”의 경우처럼 불러내기의 가능성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억압의 경우처럼 그 가능성을 차단할 수도 있다. 여기서 “기억”과 망각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간섭한다. 박은주, 앞의 논문, 463쪽.

1. 집단 “기억”의 탐색 : 《追忆乌攸先生》

이 작품은 수년 전에 강간 살인 혐의로 처형된 乌攸先生 사건을 재조사하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格非는 “乌攸先生에 대한 “기억”을 추적한다.”²⁴⁾ 라고 증위를 달리 하는 제목을 내걸고 있다. 즉 사건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마을 사람들(집단)의 “기억”을 추적하고 있다. 그런데 조어(造語)인 乌攸라는 어휘가 본래 사전적인 의미가 없으며, 발음이 wuyou로 “있지 않다”는 无有(wuyou)와 谐音(같은 음 다른 뜻)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런 어휘를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한 작가의 의도는 이 작품이 단순히 형사 사건을 재조사하는 내용이 아닐 것이라고 추정하게 된다.²⁵⁾

이 작품의 시작은 경찰 3명이 수년전에 죽은 乌攸先生의 죽음을 조사하려 이 마을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²⁶⁾

24) 프루스트의 《A La Recherche Du Temps Per Perdu》를 직역하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인데, 중국에선 《追忆逝水年华》라고 “Recherche”를 “회상하다 追忆”라고 번역한다. 格非가 프루스트의 중역본으로 《追忆逝水年华》을 읽었다고 추정하면, 그의 처녀작 《追忆乌攸先生》과 프루스트의 《追忆逝水年华》은 “追忆”이라는 면에서 혈연관계가 있다. 그리고 废名의 대표작 <莫须有先生传>의 “莫须有”도 “반드시 있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뜻이고 乌攸(wuyou)도 “존재하지 않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볼 때 서로 무관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 이는 이 작품이 형사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을 그린 리얼리즘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25) 格非의 작품 제목은 수수께끼 같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불명확 한데, 작품을 읽고 나면 작품 전체를 풀이하는 실마리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우기의 감각 雨季的感觉》의 경우가 그렇다. 처음에는 雨季와 감각이 어떤 관계인가 하고 의문을 갖다가 작품을 다 읽고 나면 결국 雨季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감각이 변화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된다.

26) 그의 다른 작품 《失踪》에서도 20여 년 전 발생한 祝云清이란 여성의 실종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 “科技下乡团”이 작은 镇에 파견되는 내용이다. 镇의 사람들의 파편적인 “기억”으로 사건은 더욱 종잡을 수 없는 오리무중의 사건으로 남게 된다. 李洁, 앞의 논문, 82쪽.

백색 경찰복을 입은 중년 남자 두 명과 치마를 입은 소녀가 이 마을에 왔을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마지못해 乌攸先生을 상기하게 됐다. 그 오래된 일은 처녀가 징조를 팽개치는 것처럼 사람들을 흥분시켰다. 이 마을의 어른들은 지난날의 고통을 다시 느끼는 것을 취미로 하는 젊은이들에게 부단히 반복해 말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잊게 할 것이다.²⁷⁾

이러한 도입부 첫 문단은 이 소설이 경찰들이 마을 사람들(집단)이 잊고 싶은 “기억”을 탐색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말한다. 마을 사람들에게 乌攸先生의 죽음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을의 상처인데, 갑자기 외부 사람들인 경찰이 와서 재수사하려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흥분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 하나, 나이 든 사람들은 시간(역사)의 흐름에 맡겨 “망각” 하자고 훈계한다.

일반적으로 탐정 소설은 살인이라는 범죄와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 결말로서 범죄의 해명이나 범인 체포로 종결된다. 그 과정은 “범죄의 스토리”와 “조사의 스토리”로 나뉘지며,²⁸⁾ 수수께끼 제시→논리적 추리과정→수수께끼 풀기라는 공식을 지닌다.²⁹⁾ 추리 작가는 이런 탐정의 추리를 일정한 정보 단위로 분화시켜 이들을 감추고 드러내는 가운데 서사를 진행시킨다.³⁰⁾ 문체도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건조한 논리적 언어를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탐정소설은 논리적 사고의 문체라 할 수 있다.³¹⁾

27) 格非, <追忆乌攸先生>, 《戒指花》, 春风文艺出版社, 2007, 1쪽. “当两个穿着白色警服的中年男子和另一个穿着裙子的少女来到这个村子里时, 人们才不情愿地想起乌攸先生。那个遥远的事情像姑娘的贞操丢弃一样容易使人激动。既然人们的记忆通过这三个外乡人的介入而被唤醒, 这个村子里的长辈会对任何一个企图再一次感受痛苦往事趣味的年轻人不断地重复说; 时间叫人忘记一切。”

28) 정희모, <추리기법의 변용, 서사화의 가능성>,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학연구회, 1997, 210-211쪽.

29) 임성래, 이정옥, <변용 추리소설의 소설적 의미>, 《대중서사연구》 제11권 제2호, 2005. 283쪽.

30) 정희모, 앞의 책, 211쪽.

31) 송덕호, <추리 소설의 유형>,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학연구회

이 소설의 내용을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인과적 관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명의 경찰의 탐문 결과 화자인 “나”와 숲 지키는 노인(守林老人), 동생 老K, 작은 발의 여인(小脚女人) 등의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乌攸先生은 용모 단정하며, 독서를 좋아하고, 마을 아이들의 류머티즘을 치료해 주는 선행으로 주민들의 존경을 받고 챔이란 처녀의 흠모 대상이다. 이에 반해 마을의 우두머리(头领)는 강건한 근육과 넓은 앞이마를 지닌 멋있는 사자와 같은 자이다. 그는 乌攸先生으로 인해 자신의 권위의 일부가 동요 받는다고 느끼고 乌攸先生의 책을 불태우고, 자신이 챔을 강간치사하고도 그 누명을 乌攸先生에 씌워 처형시킨다.³²⁾ 이것이 乌攸先生 사건의 진상이다. 이렇게 보면 이 소설은 탐정(여기선 경찰), 범인과 희생자 등 추리소설의 3요소가 있고, “범죄의 스토리”와 “조사의 스토리”도 있고, 수수께끼의 제시와 풀기 등의 공식도 갖춰져 있는 추리소설의 외형을 지니고 있다.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 배경으로 볼 때 문혁(文革)시에 발생했던 정치적 살인 사건을 회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제재(題材)를 보면 역사 현실을 반영하고 문혁(文革)을 고발하는 당시 중국 문단의 상흔(伤痕)문학과 반사(反思)문학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이런 현실주의 범주의 사조와는 다르게 “기억”의 방식으로 서술된다.³³⁾ 이 소설이 일반적인 추리소설이 아니라 “기억”을 찾는 여행이라는 것은 格非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을 쓰기 전에 나의 “기억”은 줄곧 어둠 속에서 깊은 잠을 잤다. 지금 그것은 마침내 내게 좁은 틈을 드러냈다. “기억” 중의 사물은 마치 일찍이 망각된 꿈처럼 갑자기 나타났다. 나는 그 신비함과 풍부함과 무한

편, 1997. 37쪽.

32) 蔡志诚, <身体, 历史与记忆的侦探>, 《西安电子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17卷 第1期, 2007, 101쪽.

33) 같은 논문, 100쪽.

함을 느꼈다.³⁴⁾

다른 글에서 그는 14시간의 기차 여행 중에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라 일기장에 신들린 듯 완성하고, “나는 처음으로 생명, “기억” 그리고 글쓰기가 구성하는 신비한 관계를 의식했다”³⁵⁾고 진술하고 있다.

“기억”을 서술하는 방법으로 프루스트처럼 1인칭 화자가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 소설처럼 탐정소설의 형태로 대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억”의 과정은 수사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기억”은 속성상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를 상기하는 것이며, 시간 순서에 관계없이 파편적이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경찰의 사건 조사도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 사건의 진상을 탐문한다. 그리고 그 탐문 과정은 “기억”처럼 목격자나 증거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되며 각 목격자의 위치에 따라 공간이 이동된다. 이런 과정의 유사성으로 “기억”을 찾아가는 소설들은 조사나 탐정 수법을 즐겨 차용한다.

그러나 “기억”이 “추리”와 다른 점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格非가 위에서 말하는 “기억과 글쓰기의 신비한 관계”는 이를 두고 하는 것이다. 만약 작품 내에서 “기억”이 인과법칙으로 정리되면 리얼리즘의 범주에 속하는 “추리” 소설이 된다.³⁶⁾ 格非는 인과법칙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몫을 독자에게 맡기고 사건을 비 현실화하는 우언(寓言)식으로 소설을 이끌어 간다.

첫 장의 서술과 묘사는 독자를 당황하게 한다. 경찰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乌攸先生的 죽음에 대해 탐문하는데 대답을 들을 수 없다. 그것은 그

34) 格非, <小说和记忆>, 《文艺理论研究》, 中国文艺理论学会, 1994, 67쪽.

35) 같은 책, 67쪽. “我在着手写《追忆乌攸先生》这篇小说, 第一次意识到生命, 记忆以及写作所构成的那种神秘关系.”

36) 劉震云이 <濫故1942>에서 화자인 “나”가 하남성 연진 지역 노인들을 방문하며 그들의 “기억”을 탐문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방법이다. 그러나 劉震云은 그들의 “기억”을 현재 “나”의 관점으로 이성적으로 역사의 진상을 밝히려 했기 때문에 신사실주의적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무관심하거나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자인 “나”는 적극 협조하며 그들에게 당시 상황을 진술한다. 乌攸先生이 처형당하는 날 “나”가 어머니에게 처형 장면을 보러 가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사람 죽이는 것은 닭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아침에 닭을 잡으려다 실패한 동생도 乌攸先生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난 뒤 “살인이 닭 잡는 것 보다 훨씬 쉽다.”라고 말한다. 乌攸先生이 처형되던 날인 단오절에 어린 며느리가 뛰어 가면서 외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셔츠 속에서 흔들리는 젓가슴만 쳐다보느라 아무도 그녀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러한 “나”의 서술은 인과를 따지는 추리소설의 논리성을 해체시킨다. 다시 말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논리적 서술이 아니고, “나”의 두서없고 주관적인 “기억”을 자의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乌攸先生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기억”을 말할 때도 동정적이든 무심하든 증오하든 모두 파편적이고 모호한 집단 “기억”뿐이다.³⁷⁾ 마을 사람들이 진술을 하지 않는 이유도 몰라서가 아니고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닭 잡는 것과 같거나 더 쉽고, 어린 며느리의 외침도 마을 사람들의 음흉한 시선에 묻히고 만다.³⁸⁾ “기억”은 사건의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진상 보다는 자기에게 충격적인 것을 먼저 “기억”하기 때문이다.

2장부터는 화자가 1인칭 “나”에서 3인칭으로 이동한다. 乌攸先生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기억”을 전달하는 “나”의 서술이 3인칭 화자의 서술로 바뀌면서, 개인의 “기억”에서 마을 사람들의 “집단적 기억”으로 변화된다. 더 중요한 것은 다수 목격자의 진술이 증거에 근거하는 서술 형식으로 바뀌면서 오랫동안 망각됐던 “기억”이 뚜렷하게 회복되는 점이다.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던 “기억”의 편린들이 몽타주 기법처럼 합성되면서 감추어졌던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다.³⁹⁾

37) 李洁, 앞의 논문, 81쪽.

38) 格非, 앞의 책, <追忆乌攸先生>, 《戒指花》, 1-3쪽.

39) 蔡志诚, 앞의 논문, <身体, 历史与记忆的侦探>, 102쪽.

그러나 그 “기억”의 편린들은 순차적인 이성의 시간에 따라 떠오른 것이 아니다. 그 불규칙한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乌攸先生이 처형된 날의 장면들 : 단오절
- ② 乌攸先生의 책이 頭領(권력자)의 명령에 의해 소각되던 장면
- ③ 乌攸先生이 頭領(권력자)과 싸운 장면
- ④ 乌攸先生이 마을 아이들의 류마티즘을 치료하게 된 과정
- ⑤ 乌攸先生이 책이 없어도 아이들의 병을 고쳐줘 다시 주민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진료가 끝나면 杻子을 배웅하는 장면
- ⑥ 원숭이 곡예 하는 날 頭領(권력자)이 乌攸先生과 杻子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장면
- ⑦ 乌攸先生이 杻子을 죽였다는 소문이 도는 장면
- ⑧ 범의사가 杻子의 사체를 해부하는 장면
- ⑨ 乌攸先生 처형 전날 집행자가 총을 손보는 장면
- ⑩ 小脚女人이 頭領(권력자)이 杻子을 강간하고 죽이는 것을 목격하는 장면
- ⑪ 乌攸先生이 처형 당일 날 小脚女人이 사건의 진상을 알리려 형장으로 뛰어가는 장면
- ⑫ 乌攸先生이 처형당하는 순간 입을 벌려 말하려 하나 혀가 잘려 말을 못하는 장면

이를 사건 발생 순서로 다시 정리해 보면 ④→②→③→⑤→⑥→⑩→⑦→⑧→⑨→①→⑪→⑫가 되는데, 이처럼 이 작품의 시간은 순차적이지 않다. 이런 무질서한 배열로 인해 이 작품은 현실 사건의 재연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이란 방식으로 조명된 새로운 서사 세계가 되는 것이다.

그 세계는 文革에 대한 “기억”으로 농축된 상징 구조를 보여준다. 乌攸先生, 頭領(권력자) 등은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기호화 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乌攸先生은 지식인의 상징으로서 책을 좋아하며 세상 사람을 구하고 지식으로 세상을 開明시키려 한다. 頭領(우두머리)은 폭력의 정치적 상징이다. 마을 사람들은 “어떤 때는 우두머리의 연설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

었다.”⁴⁰⁾라고 한다. 이것이 文革의 정치 수사학이다. 마을 사람들의 감동은 민의(民意)가 돼, 권력은 그를 기반으로 폭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寓言식 서술은 문혁 시기 군중의 심리를 비판하는 反諷이다.⁴¹⁾

이 작품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反諷은 頭領(우두머리)나 마을 사람들의 의식 뿐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겠다고 온 경찰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 乌攸先生이 頭領과의 싸움에서 죽도록 맞았다는 숲 지키는 노인(守林老人)의 증언을 듣자, 경찰들은 폭스트롯 춤을 출 정도로 즐거워하고, 여 경찰은 이 노인의 이마에 입을 맞출 정도로 즐거워한다.⁴²⁾ 경찰들의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진정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 온 것인지 의심케 한다. 그들도 이 마을 사람들처럼 마치 흥밋거리를 찾는 관객의 자세로 문혁 때 발생한 비극적 사건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여 경찰이 노트를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것을 조사했어도⁴³⁾ 단지 형식적인 조사일 뿐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을 것임을 암시한다.

2. 존재에 대한 “기억” 탐색 : 《靑黃》

소설 《靑黃》(1988)은 특이하게도 “靑黃”이라는 어휘의 의미를 찾는 여정을 그린다. 이 소설은 화자 “나”가 麦村에 가서 “靑黃”이란 단어의 뜻을 조사하나 결국에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로 이루어진다. 즉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관념의 여행이다.

도입부에서 작가는 어떻게 해서 “靑黃”이란 어휘에 관심을 갖고 麦村이

40) 格非, 앞의 책, <追忆乌攸先生>, 6쪽. “有时他们尽管知道头领的演说是一种欺骗, 他们也不禁要被感动得流下泪来”.

41) 蔡志诚, 앞의 논문, 102쪽.

42) 格非, 앞의 책, <追忆乌攸先生>, 4쪽. “当三个外乡人从一个守林老人嘴里知道了那件事以后, 他们乐的跳起狐步舞来, 那个穿裙子的少女冷不防在老人满脸格斯胡的额上亲了一下.”

43) 같은 책, 7쪽. “三个外乡来的警察手段高明, 那个穿裙子的少女已经把那本三十厘米长, 五十厘米高的笔记本记满了。”

란 곳까지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작가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화자 “나”가 《麦村地方志》와 《中国娼妓史》에서 공히 발견되는 “靑黃”이란 어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다. 즉 어떤 현실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다. 화자 “나”의 추측으로는 “靑黃”은 苏子河에서 떠돌면서 배에서 매춘행위를 했던 9개 성(姓)으로 구성된 어부 가족과 관련되어 있다. 麦村은 그 어부들의 마지막 후손이 흘러들어간 어촌 마을이다. 그런데 《中国娼妓史》의 저자 譚維年 교수에게서 “麦村에 가도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듣는다. 즉 처음부터 실패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화자 “나”가 작품에서 명기한 데로 “靑黃”이란 어휘의 내용이 구태여 麦村까지 가서 조사해 보아야 할 만큼 “매우 매혹” 적인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작가가 과연 이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 하는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소설을 매춘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수상 가옥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당시 중국 어촌 사회의 도덕 문제를 고발하는 작품으로 독해하는 것도 물론 적절하지 않다. 작가는 끝까지 이 작품의 동기나 의도를 숨기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언외(言外)의 의미나 의도를 찾아야 한다. 좀 더 화자 “나”의 조사 경위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

麦村에 도착한 화자 “나”는 양 울타리를 고치는 노인에게서 그가 “기억”하는 9개 姓의 어부들의 마지막 후손인 張씨 부녀가 이 마을에 들어온 날의 정경을 듣게 된다.⁴⁴⁾ 부서진 배를 타고 중년 남자와 딸이 부두에 도착한 뒤 배를 태우고 장맛비를 맞으며 이 마을에 도착했고, 오후 거룻배를 운전하던 艍公이 그들을 데려 갔고, 며칠 뒤에 艍公의 배가 뒤집혀서 3명이 죽었으며 그 딸아이의 이름이 小青이라는 말은 들었으나, “靑黃”의 의미는 듣지 못한다. 화자는 여기서 그 노인이 “어떤 사건을 말하는 동시에 다른 것을 감추는”⁴⁵⁾ 이상한 인상을 받았다고 묘한 뉘앙스를 고 풍긴

44) 이 마을은 《追忆乌攸先生》처럼 “열정과 호기심이 없는 마을一个缺乏热情和好奇心的村子”이고, 사람들도 “창피한 일 不光彩的事”을 다시 떠올리기 원하지 않는다. 格非, <靑黃>, 앞의 책, 62-63쪽.

다. 그 날 저녁 밀가루 공장 나무 침대에 누워 꿈결에 갑자기 9년 전의 일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는 9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 뒤 스토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9년 전 노인 李貴와 비 오던 밤 麦村 마을 외과 의사의 집에서 투숙, 밤에 李貴 노인이 사라졌다 돌아 옴.
- ② 외과 의사의 “기억”과 진술: 어렸을 때 수상 가옥에서 온 張씨의 죽음을 봄, 9성 수상 가옥의 기녀들 중 젊을 기녀는 靑, 늙은 기녀는 黃이라고 설명한다.
- ③ 청년 康康의 “기억”: 오래 전 홍수로 張씨 장씨의 관이 떠내려 왔는데 그 안에 시체가 없었다.
- ④ 늙은 小靑의 “기억”: 아버지 張씨 혼령이 와서 자기 아들을 데려 갔다.
- ⑤ 산림 지키는 사람의 “기억”: 張씨가 후처 맞이하던 날과 첫날밤의 정경을 기억하다
- ⑥ 늙은 小靑의 “기억”: 평범한 어민이었던 그들이 수상 매음굴이 된 사연, 계모 李翠 죽음의 사연을 진술하다.
- ⑦ 李貴 노인의 진술: 자신은 몽유병이 있고, “靑黃”이란 개의 이름이라고 설명하다.
- ⑧ 수년 후 시립도서관 사진 《词综》에서 “靑黃”이란 초목 식물이란 항목을 보다.

시간의 이동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조사하러 麦村에 체류하는 현재와 9년 전, 그리고 수년 후로 크게 나눌 수 있으나 여러 사람들의 “기억”은 수상 가옥에 살던 張씨 부녀가 麦村에 들어 온 날부터 그의 사망일, 그의 관이 떠내려 온 날, 손자의 죽음, 張씨의 재혼, 계모 李翠 죽음, 그리고 수년 후로 비교적 순차적 시간 순을 지닌다. 그러나 “기억”하는 현재 시기와 “기억” 중의 과거 시기가 중첩되면서 다층위적인 입체감을 제공한다. 그런 과정 중에서 “靑黃”이란 어휘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기억”된다.

45) 같은 책, 63쪽. “他在提示一些事情的同时也掩盖了另一些事.”

- ① 9姓 수상 가옥의 편년사
- ② 젊은 기녀 靑, 늙은 기녀 黃이 있는 수상 가옥의 기녀들의 명칭
- ③ 푸른 여름과 누런 가을을 말하는 계절 이름
- ④ 등은 남성색이고 배는 누런색 반점이 있는 개의 이름
- ⑤ 뿌리가 황색이고 몸체는 회색 털이 나 있는 초목 식물

구조주의 언어학으로 보면 “靑黃”이란 어휘가 지니는 기표(signifiant)는 이상의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기의(signified)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靑黃”의 의미는 각기 다른 “기억”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즉 그 기표와 기의는 서로 필연적이거나 논리적인 관계가 아니고 자의적이다.⁴⁶⁾ 따라서 “靑黃”의 의미를 찾는 것은 본래부터 無望한 계획이었고 본래 작가의 의도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각기 다른 “靑黃”에 대한 “기억”은 格非에 의하면 “존재”에 대한 “기억”이다. 그는 “존재”와 “현실”이란 두 어휘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여기서 “현실”은 집단 경험에 의해 최종 인정된 것이라면, “존재”는 개인 체험의 산물이고 집단 경험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先鋒派 작가인 格非는 “역사”나 “현실”의 소위 진실성에 대해 회의하고 그것들은 타자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인식한다. “현실”은 완정하고 해석과 설명이 가능한 데 비해 “존재”는 조각난 것이고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쉽게 변하다. “현실”은 복제되고 재현될 수 있으나 “존재”는 반드시 발견하고 탐구하고 포착하고 표현돼야 한다.⁴⁷⁾ 소설 《靑黃》의 창작 배경으로 그의 동료에 의해 제공된 개인 체험 -“존재”-은 다음과 같다.

46) 이정, <쓰쉬르 연구-언어 기호론>, 《언어기호론》, 한글학회, 1980, 539쪽.

47) 格非, <小说与现实>, 《小说叙事研究》, 清华大学出版社, 2002, 15쪽. “대중 매체가 개인의식이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강력해지는 작금, 개인의 자주 의식은 점차 상실되고 사유에 타성이 발생한다. 작가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굳어버린 것으로 불변하는 기정 실재이다. 개인의 체험은 신문이나 TV에서 나타나는 말들에 의해 대체된다. 이런 사회에서 진행되는 사고는 개인이 아니고 끝없이 욕망하는 대중 매체의 유령이다.”

“기억”하기에 86년 여름 우리 둘은 千島湖에 여행을 갔다(명의는 고찰이었다). 낮에는 여기저기 한가히 돌아다녔다. 밤에는 여관에서 한담을 나누었다. 현의 문화 관장이 우리에게 그 지방의 풍습과 인심을 소개했다. 그 중 9성 어부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호기심을 끌어 특별히 그 어부들이 살던 곳에 찾아 갔으나 결과는 아무 소득도 없었다. 그곳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陈友谅의 부하라고 있다.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현의 역사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선박들의 여성들이 매음을 했다는 전설을 한사코 부인했다. 그들은 조상들에 관해 “기억”하는 것은 태평천국을 도와 승리를 한 것이나, 이는 현의 역사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2년 뒤 格非는 이 체험으로 《青黄》을 완성했다. 그러나 현실의 체험은 단지 도입부이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 속아서 방문한 것이 그의 소설에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매료시키는 이야기로 바뀐 것이 놀랄 뿐이다.”⁴⁸⁾

현의 지방 역사서에 기록된 “현실”은 “陈友谅⁴⁹⁾의 부하”라는 명예스런 것이고, 태평천국을 도왔다는 것과 그곳 어촌 마을에 수상 가옥에서 매음을 했다는 이야기는 감춰져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 “존재”는 조각난 것이고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쉽게 변하다. 이러한 존재인 “青黄”은 기표와 기의가 임의로 변화는 어휘인 것이다. 지역민들의 망각하고 싶은 “기억”과 여행의 개인 체험과 새로운 언어관과 상상 등 다층위적인 의도가 혼재되어 있는 이 작품은 格非의 동료 말대로 흥미 있고 매력적인 새로운 세계로 독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III. 結 論

중국의 先鋒派(Avant-garde) 작가 格非는 프루스트, 카프카, 廢名의 영

48) 格非, 《唢哨》, 长江文艺出版社, 1994, 243쪽.

49) 陈友谅(1320年~1363年10月3日)은 元 末年 균웅의 한 사람으로 농민 기의를 주도, 후에 朱元璋에게 패배함.

향을 받아 작품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삶이 아니라 그 삶을 “기억”하는 방식을 차용해 잊고 있던 과거를 탐색했다.

格非는 그의 처녀작 《追忆乌攸先生》에서 文革期의 체험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통해 당시의 집단 “기억”을 탐색하고 있다. “폭력과 침묵”이라는 테마로 독해되는 이 작품은 당시 傷痕이나 反思 문학과는 다른 길을 간다. 즉 “기억”의 방식으로 서술된 것이다. 이 방식으로 서술된 서사는 이성을 추구하는 논리적 서술이 아니라 “기억”이 지각되는 순서에 따라 “기억”의 조각들이 散種되는 서술이다. 이 작품에선 증인들을 찾아가는 경찰의 탐문 형식으로 대체된다. 그리고 증인들의 제각기 다른 “기억”에 따라 소설 속의 시공간도 선후가 뒤섞인 다층위의 시공간으로 전개 된다. 독자들은 “기억”의 조각이 몽타주 식으로 조합되고 시공간이 자유롭게 이동되는 가상 공간에서 현실을 바라보며 집단의 “기억”을 “반추 反刍”하게 된다.

소설 《青黄》은 특이하게도 “青黄”이란 어휘의 의미를 찾는 관념 여행이다. 이 작품 역시 “青黄”이란 의미를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탐색한다. 탐색 결과는 5개나 서로 다른 의미로 “기억”됨을 발견하게 된다. 즉 하나의 기표가 여러 다른 기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青黄” 자체의 의미 탐색 보다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자의적이고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青黄”은 역사서나 현실에서는 취급 되지 않는 “존재”이고, 역시 화자 “나”의 탐문도 집단 경험 밖에 존재하는 “존재”적 성격을 지닌다.

“기억”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格非의 새로운 시각은 서사의 혁신을 낳는 기반이 된다. 그 서사의 혁신으로 그의 소설은 새로운 시대(新時期)에 전적으로 다른 의미와 세계를 모색하며 리얼리즘 위주의 1980년대 중국 문단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References>

1. Cai Zhicheng, “Shēntǐ, lìshǐ yǔ jìyì de zhēntàn”, *Xi'an University of Electronic Science and Technology (Social Science Edition)*, Vol. 17, No. 1, 2007.
2. Gefei, *Qing Huang*. Zhejiang Culture and Art Publishing House, 2001.
3. Gefei, *Wénxué de yāoyuē*. Tsinghua University Press, 2010.
4. Gefei, *Bóěrhèsī de miànkǒng*. Yilin Press, 2014.
5. Gefei, *Hūshào*. Changjiang Literature and Art Publishing House, 1994.
6. Gefei, *Jie Zhi Hua*. Chunfeng Literature and Art Publishing House, 2007.
7. Gefei, *Xiǎoshuō xùshì yánjiū*. Tsinghua University Press, 2002.
8. Im Songlai, Lee Jungoak, “Meaning as novel of metamorphic detective novel – centering comparison between 『The last witness』 and 『A wall of rumor』”,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11(2), Popular Narrative Studies, 2005.
9. Jeong Huimo, “Transformation of reasoning techniques, the possibility of narration”, *What is mystery novels?*, Popular literature research society, 1997.13
10. Ju Gyeongcheol, *Read world history to culture : Four seasons*, 2014.
11. Lee Jung, “Saussure research – Language Semiotics”, *Language Semiotics*, Hangul Society, 1980.
12. Li Jie, “On Reconstruction of personal experiences in time and space – Ge Fei, the Narrative Features of Short Story”, *JOURNAL OF WUZHOU UNIVERSITY*, No.5 Vol, 2007.

13. Liu Zhenyun, *Yiju Ding Yiwanju*. Changjiang Literature and Art Publishing House, 2009.
14. Liu Zhenyun, Kim Youngcheol trans, *Yi Di Ji Mao*. Pine tree, 2004.
15. Park Eun Ju, “A Writing of paradoxical combination of memory and oblivion”, *Bwihineo and Contemporary Literature* 21, 2003.
16. Pyeon Yeongsu, “‘China’-Lesen von Kafka”, *Kafka research house* 28, Korea Kafka Society, 2012.
17. Song Deokho, “Type of mystery”, *What is Mystery*, Popular literature research society, 1997.
18. Walter Benjamin, Ban Seongwan ed, *Literary theories of Walter Benjamin* : Minumsa, 2003.
19. Zhang Xudong, *Pipíng de zōngjī*. Sānlíán Bookstore, 2003.

<참고문헌>

1. 蔡志诚, <身体, 历史与记忆的侦探>, 《西安电子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17卷第1期, 2007.
2. 格非, 《戒指花》, 春风文艺出版社, 2007.
3. 格非, 《青黄》, 浙江文艺出版社, 2001.
4. 格非, 《文学的邀约》, 清华大学出版社, 2010.
5. 格非, 《博尔赫斯的面孔》, 译林出版社, 2014.
6. 格非, 《小说叙事研究》, 清华大学出版社, 2002.
7. 格非, 《唢呐》, 长江文艺出版社, 1994.
8. 임성래, 이정옥, <변용 추리소설의 소설적 의의>, 《대중서사연구》 제 11권 제2호, 2005.
9. 정희모, <추리기법의 변용, 서사화의 가능성>,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학연구회, 1997.

10. 주경철, 《문화로 읽은 세계사》, 사계절, 2010.
11. 이정, <쏘쉬르 연구 - 언어 기호론>, 《언어기호론》, 한글학회, 1980.
12. 李洁, <时空碎片中重构的个人体验—格非中、短篇小说叙事特点初探>, 《梧州学院学报》 第17卷 第5期, 2007.
13. 刘震云, 《一句顶一万句》, 长江文艺出版社, 2009.
14. 刘震云, 김영철 역, 《답털 같은 나날들》, 소나무, 2004.
15. 박은주, <기억과 망각의 '역설적 결합'으로서의 글쓰기>, 《뫼히너와 현대문학》 21, 2003.
16. 편영수, <카프카의 중국 읽기>, 《카프카연구 제28집》, 한국 카프카학회, 2012.
17. 송덕호, <추리 소설의 유형>,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대중문학연구회 편, 1997.
18. 발터 벤야민,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민음사, 2003.
19. 张旭东, 《批评的踪迹》, 三联书店, 2003.

<Abstract>

Under the influence of Proust, Kafka, Feiming(废名), Chinese Avant-garde novelist Gefei(格非) explored 'past' in a way that those who experienced life 'remember' the life, rather than actual life. The novel 《Qīng huáng 青黄》 is peculiarly a journey of idea (idle ideological argument) to search for the meaning of the word 'Qīng huáng'. This work also explores the meaning of 'Qīng huáng' through people's 'memories'. 5 different meanings are eventually found after the exploration. That is, one 'signifier' has many different 'signifieds'. The author intends to say the relationship between 'signifier' and 'signified' is voluntary and fluid, rather than to explore the meaning of 'Qīng huáng' itself. And 'Qīng

huáng’ is the ‘existence’ not handled in a history book or reality and likewise the questioning on ‘I’ by the speaker is of ‘existential property’ outside of collective experience.

Key Words : 기억(memory), 망각(oblivion), 존재(existence), 탐문(investigate)
기표와 기의(signifier and signified)

